

좋은 나무 교회 (내가 만든 신)

2018 10 28



우리 교회 북클럽은 팀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9 주 동안 함께 읽었다. 앞에서 리드해야 하는 나로서는 처음에 내용이 어려워서 미리 몇 번 읽고 가서 나누어야 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눈으로 읽을 때 이해가 어렵던 내용이 막상 귀로 들으니깐 더 쉽게 와 닿았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읽고 오라고 부탁을 하였다. 팀켈러 목사님의 책은 그 내용이 신학적인 프레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논리적이고 깊은 사고를 요구한다. 그래서 평신도들에게는 이게 무슨 뜻이지 다시 멈추어서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just show up 이라는 이름에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한번 읽고 와야 '아 그렇구나' 깨달을 수 있다. 아니면 플레이를 멈추고 책 앞뒤를 다시 찬찬히 생각하면서 읽어야 알 수 있다. 마치 철학이나 신학책을 읽을 때 필요한 작업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시대에 맞는 예를 들어준다는 점이다. 물론 나이가 든 한국이민자들에게는 거리감이 있지만 뉴욕에 사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뉴스에서나 삶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우상에 대한 이론을 풀어준다. 뿐만 아니라 꼭 성경적인 본문을 다룬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자칫 철학적이거나 신학적 토론이 되기 쉬운 주제들을 성경으로 연결시켜 주니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루함이 없이 그나마 군데 군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성경 말씀을 징검다리 삼아 나갈 수 있었다.

우리 교회 북그룹의 멤버들의 평균나이가 50 대 후반이다. 그나마 아직 깊은 사고가 가능한 나이이다. 그래서 먼저 쌓인 뇌를 흔들어서 더듬거리면서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신선한 경험이었다. 9 주를 진행하는 동안 간간이 빠지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모두 잘 참석해 주셨다. 20-30 분 동안 오디오북을 듣고 마침 인터넷에서 찾은 팀켈러 목사님 내가 만든 신에 대한 질문들로부터 10 개의 질문을 뽑아서 나누었다. 오래 이야기하진 못해도 편안하게 삶에서 이런 우상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나누었다. 그러면서 다들 깜짝 놀랐다. ‘이런 우상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 교단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다른 책으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한다.

최성철 목사

9 월과 10 월 9 주에 걸쳐서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을 함께 읽었다. 그리고 책의 내용 이해를 위해 목사님이 나눠주신 질문에 답하며 또 느낀 점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책을 얻어서 기뻐고, 혼자 읽었다면 어려워서 포기 했을텐데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어서 유익한 기회였다.

처음에 책을 시작할 때 우상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모태 신앙인으로 평생을 나름대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로로그에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말이 마음에 강하게 와 닿았다. 겉으로는 하나님만을 최고로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 삶에 의미와 가치를 위해 추구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믿음의 뒤편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속 우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도 마음속 우상을 다루시기 위해 내가 원치 않았던 아픔의 시간을 주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팀 켈러는 성경의 인물들을 예리하게 분석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지적한다. 그들의 삶과 마음 깊은 곳을 꿰어보는 통찰력이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익숙한 성경이야기지만 숨겨진 우상의 실체를 잘 알지 못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숨겨진 여러 가지 우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고 새로운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에필로그에서 “내가 만든 신 식별하기”의 4 가지 방법은 매우 실질적이어서 좋았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신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과감히 부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노력을 계속 하리라고 다짐한다. 유익한 기회를 허락한 CRC 와 교회에 감사를 드린다.

장성이